

Dave Mathewson 박사, 신약 문학, 강의 37, 계시록 에 대한 해설, 세션 2

© 2024 데이브 매튜슨(Dave Mathewson) 및 테드 힐데브란트(Ted Hildebrandt)

이것은 역사와 문학의 신약성서 과정에서 요한계시록에 대한 두 번째 강의를 하는 Dave Mathewson 박사입니다.

지난 수업 시간에는 역사적 배경인 요한계시록과 관련된 서론적인 문제들을 조금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이 주로 로마에 대한 충성을 보여주고, 황제를 존경하는 행사에 참여하라는 압력을 받으며, 황제 숭배의 영향을 받는 로마 제국과 로마 통치의 맥락에서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마도 약간의 박해가 있었을 것입니다. 비록 로마 황제 자신이 공식적으로 박해를 승인한 것이 아니라 주로 지역 차원에서 이루어졌겠지만, 대부분은 로마의 호의를 유지하고 로마에 대한 감사와 충성을 보여주고 싶어하는 지역 관리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야기했을 문제는 그것에 저항하여 그 결과를 겪을 것인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헌신과 믿음에 있어서 타협하고 안주하게 될 것인지입니다.

따라서 요한계시록은 주로 로마 통치의 진정한 본질을 폭로하여 로마 통치의 영적 파산, 부패함, 가식, 오만함, 생명을 희생하면서 부를 향한 욕망과 굶주림을 폭로하는 수단으로 기록되었습니다. 타인에 대한 억압과 부를 축적하려는 욕망. 요한은 독자들이 로마의 진정한 본질을 볼 수 있도록 전체 시스템을 폭로합니다. 그것이 전부는 아니지만 대신에 요한은 그것이 실제로 끔찍하고 피에 굶주린 짐승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그것에 굴복한다면 모든 것을 잃을 것이며 그 대신 믿음과 순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무슨 일이 있어도 예배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줄 것입니다. 결과.

우리는 요한계시록의 문학적 장르를 조금 살펴보았는데, 우리가 직면한 문제 중 하나는 요한계시록이 오늘날 실제로 문학적으로 밀접한 유사점이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했듯이 우리는 편지와 설화, 이야기와 시를 쓰고 읽습니다. 이 모든 것은 구약 성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에 관해서는 우리가 종말, 곧 다음과 같은 형태의 예언이라고 말했습니다. 편지, 우리 정말, 마지막으로 종말론을 읽거나 쓴 게 언제입니까? 우리는 종말이 실제로 천상의 세계에 대한 환상적 경험과 경험적 세계 뒤에 있는 미래에 대한 1인칭 이야기라고 말했습니다. 즉, 독자가 보는 것은 역사라는 무대 위의 세계뿐이며, 종말이 하는 일은 독자가 경험적 세계 뒤에 있는 진정한 천상의 현실과 그 뒤에 있는 미래를 볼 수 있도록 장막을 들어올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종말은 환상적 설명, 즉 미래의 천상의 현실에 대한 초월적인 환상적 경험에 대한 환상적 설명을 일인칭으로 서술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더 이상 그런 방식으로 의사소통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문학적 비유 하나, 현대 문학적 유사점 중 하나를 제안한다면 그것은 정치 만화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나에게 독창적이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이것을 제안했지만, 생각할수록 그것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학, 미안해요, 정치 만화에 대해 생각해 보면, 우선 정치 만화는 실제 사건, 실제 역사적 인물 및 사건에 대해 논평하거나 언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들은 단지 허구가 아닙니다.

그것들은 단지 공상과학 소설이 아닙니다. 그들은 실제로 현재 일어나고 있거나 일어났거나 곧 일어날 특정 사건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는 귀하와 내가 식별하고 읽을 수 있고 뉴스를 통해 알 수 있는 실제 인물을 의미합니다.

이는 우리가 식별할 수 있는 21세기 세계의 실제 정치적 가치 사상과 사건을 의미합니다. 정치만화는 현실에 뿌리를 두고 있다. 이는 실제 역사적 인물, 장소 및 사건을 나타냅니다.

그러나 두 번째로 언급해야 할 점은 그러한 인물, 장소, 사건에 대한 매우 과장된 상징적 묘사를 통해 그렇게 하는 방식입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배경과 정치적 상황, 사람과 역사적 상황을 모두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것에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정치 만화에서 사용하는 일부

상징에 익숙하기 때문에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 상징을 식별하고 공감할 수 있습니다. 제가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는 제가 신학교에 다닐 때 몬타나에 살던 때를 기억합니다. 여름이면 집에 가서 일을 하곤 했습니다. 어느 여름에는 목장 주인이 낡은 오두막, 낡은 통나무를 해체하는 것을 돕고 있었습니다. 통나무 중 일부는 아직 상태가 좋았기 때문에 그는 그 통나무를 사용하여 자신의 오두막을 지을 예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찢었고, 추운 몬타나의 겨울 바람을 막기 위해 통나무 사이에 그 오두막을 지은 사람이 누구든지 통나무 사이에 신문지를 채워 바람을 막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록을 떼어내자 신문이 떨어지기 시작했고 그 중 두 개에는 30년대, 40년대, 50년대의 정치 만화가 실려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일부 만화에는 전혀 없었습니다. 몇 가지 이유를 이해합니다. 첫째, 나는 일부 상징과 그것이 의미하는 바를 확신하지 못했지만 다른 것들은 그랬습니다.

둘째, 저는 할 수 없었습니다. 제 역사가 녹슬었기 때문에 1940년대와 50년대에 미국과 세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역사적으로나 정치적으로 기억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정치 만화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정치적인 만화와 같은 기능을 하며, 우리가 역사적 상황과 배경, 요한이 사용한 상징 중 일부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요한계시록의 환상을 오해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요한계시록은 정치 만화와 매우 유사합니다. 이는 1세기의 역사적, 종교적, 정치적 상황에 대한 일종의 논평입니다.

요한은 구약과 1세기 세계의 상징을 사용하여 우리의 정치적 만화와 마찬가지로 매우 과장된 상징적 방식으로 묘사함으로써 우리가 이해하도록 돕거나 독자들이 로마와의 갈등의 본질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1세기에 일어나고 있는 일의 실제 성격. 상징과 과장된 묘사가 포함된 정치 만화와 마찬가지로, 특정 관점에서 정치적, 역사적 상황을 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정치 만화의 일부 상징은 스톡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는 독수리를 보면 즉시 미국과 동일시합니다. 당나귀나 코끼리를 본다면, 우리는 그것들이 각각의 정당을 상징하는 것으로 식별합니다. 그럼, 보이나요? 요점은 미국 어딘가에 줄무늬와 별이 있는 당나귀나 코끼리가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요점이 아니다. 요점은 그 동물들이 상징적으로 정당을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고 일곱 머리를 가진 짐승이나 용에 대한 설명을 읽을 때, 그것은 문자 그대로 1세기 어딘가에 존재했거나 앞으로 존재할 용을 묘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나귀나 코끼리가 각 정당을 대표하고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것은 로마제국과 황제의 본질을 상징적으로 대표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멈춰서 정치 만화에 대해 생각하거나 정치 만화를 읽으면 의심의 여지 없이 특정 역사적 사건에 대한 일종의 과장된 상징적 묘사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 그 사람이 그냥 앉아서 상황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설명하는 짧은 문단을 쓰는 것보다 사건에 대해 뭔가를 말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습니까?

과장된 상징적 방식으로 이러한 다양한 상징을 사용하여 이 정치 만화를 구성함으로써 저자는 휘발유 가격 상승이든 경제와 관련된 것이든 최근 경제 침체와 관련된 것이든 이 특정 정치적 사건에 대해 더 강력하게 말하고 논평할 수 있습니다. 오사마 빈 라덴 등. 그 모든 사건들은 정치적 만화와 함께 고도로 상징적이고 과장된 언어로 묘사될 때 우리에게 더욱 강력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치 만화가 도움이 되는 비유라고 제안하고 싶습니다.

상황에 반응하도록 하기 위해 인지적, 지적, 정서적으로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특정한 관점을 제공하기 위한 하나의 큰 정치적 만화로 볼 수 있습니다. 1세기와 역사가 향하고 있는 미래. 요한계시록은 일종의 정치적 만화이며, 요한 계시록이 궁극적으로 가리키는 1세기 상황과 미래에 대한 해설입니다. 그리고 마치 정치적 만화처럼 요한계시록은 1세기의 실제 인물과 장소, 사건을 언급하고 계시록의 마지막 장에서 궁극적으로 미래의 사건으로 끝나는 반면, 비록 실제 인물, 장소, 사건을 언급하고 있지만 이를

전달하고 CNN 뉴스 보도나 다큐멘터리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문자 그대로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상징적으로, 종종 매우 과장된 언어로 설명하므로 지적으로나 감정적으로 반응하여 John이 말한 요점을 더욱 강력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건너가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요한이 말하는 것보다 더 효과적인 것은 로마 제국을 멀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기독교인을 얻으려는 것입니다. 로마 제국은 하나님이 반대하는 모든 것에 맞서고, 가식적이고 오만하며 스스로를 하나님으로 자처합니다. 당신은 그것을 피해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까, 아니면 기독교인을 삼키려고 시도하는 것으로 보이는 거의 악몽 같은 비율의 일곱 머리가 달린 무시무시한 짐승의 그림을 그리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까? 이것이 여러분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것이 바로 계시록이 하는 일이며, 어떤 면에서는 계시록이 적어도 현대 현대 정치 만화와 어떻게 유사한지 보여줍니다. 이제 제가 하고 싶은 것은 요한계시록의 배경, 문학적 장르, 주요 주제, 그리고 그것이 하는 일에 대해 논의한 후 요한계시록의 일부 섹션을 샘플링해 드리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책의 일반적인 내용과 흐름에 대한 개요를 원한다면 다시 한 번 교과서로 돌아가서 Powell의 신약성경 소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제가 하고 싶은 것은 책 전체를 훑어보며 요한계시록의 주요 부분 중 일부의 샘플을 제공하고 그 부분들이 어떻게 기능하는지, 요한이 요한계시록에서 다루고 있는 특정 상황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요한이 요한계시록에서 다루고 있는 특정 상황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특히 구약성서의 상징과 배경은 각 부분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에 대해 우리가 조금 더 잘 이해하고 인식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제가 살펴보고 싶은 첫 번째 부분은 4장과 5장입니다. 이 부분은 하나님과 보좌 위에 계신 어린양에 대한 환상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은 실제로 요한이 본 환상의 핵심으로 시작되며, 요한이 세상의 종말을 예상하는 것처럼 요한이 하늘로 올라가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휘장을 들어올리실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요한이 1세기 로마 제국의 상황에 살고 있었을 때, 하나님은 이제 휘장을 걷어 올리시고 요한에게 1세기 뒤에 놓여 있는 하늘의 현실을 엿볼 수 있게 하려고 하십니다.

4장이 시작되는데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거기 하늘에 문이 열려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나팔 소리 같이 내게 말하던 그 음성이 이르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 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즉시 영에 감동하였더니 거기 하늘에 보좌가 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더라. 이제 저는 여러분이 일종의 상징적 묘사에 주의를 기울이고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인지적으로 이해할 뿐만 아니라 John이 이와 같은 비전을 보는 것이 어떤 것인지 감정적으로 느끼고 감지하기를 바랍니다.

이르시되 내가 거기 하늘에 보좌와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거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옥수 같고 보좌 주위에 녹보석 같이 보이는 무지개가 있으니라. 그 보좌 주위에는 보좌가 24개 있고 그 보좌 위에는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 면류관을 쓴 24 장로가 앉아 있습니다.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천둥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일곱 촛불이 켜진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일곱 영이니라.

그리고 보좌 앞에는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 같은 것이 있습니다. 보좌 주위에는 보좌 양쪽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소 같고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얼굴 같고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으니라.

그리고 네 생물은 각각 여섯 개의 날개를 가지고 있는데, 그 주위와 안쪽에는 모두 눈이 가득합니다. 저는 여기서 멈추겠습니다. 요한이 본 천국의 보좌와 그 보좌에 앉으신 분의 환상을 여러분은 이해하실 것입니다. 흥미롭게도 요한은 보좌에 앉으신 분의 모습을 묘사하지 않고 그가 보는 것이 수정과 보석의 광채에 비유될 수 있다는 사실을 묘사합니다.

그리고 보좌로부터 번개와 천둥이 치는데 이는 심판의 이미지를 불러일으킵니다. 왕좌 자체는 심판의 이미지를 불러일으킵니다. 그 다음에는 보좌를 둘러싸고 있는 네 생물과 24장로를 다소 생생한 용어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이러한 비전을 쓴 John의 경험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의미에서 존은 자신이 경험한 것을 인지적으로나 감정적으로도 독자들이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4장, 4장은 하나님과 보좌를 묘사하는 이 그림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이미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볼 수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이 보좌는 실제로 다른 보좌를 빼앗고 대체하기 위한 것입니까? 그리고 그게 뭔지 추측할 수 있나요? 1세기 로마 제국에서는 카이사르가 왕좌에 앉았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경험적 세계를 내다볼 때 그들이 본 것은 로마의 영향력이 커져가는 것뿐이었습니다.

이제 요한은 가이사가 보좌에 앉아 있지 않고 지금은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시는 천국을 엿볼 수 있는 특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피조물이 모여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의 주권을 인정할 것입니다. 그래서 즉시 요한은 다시 장막을 들어올리기 시작하여 요한이 하늘의 실재를 볼 수 있는 특권을 얻었습니다.

그러므로 지구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은 전부가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카이사르가 왕좌에 앉았고 로마 제국은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요한은 하늘에 참된 보좌, 온 땅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좌정하신 참된 하늘 보좌가 있는 다른 현실을 봅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5장은 계속해서 또 다른 인물을 소개합니다. 그것은 여전히 동일한 보좌 장면입니다. 요한이 이제 들어가서 엿볼 수 있는 특권을 받은 하늘 보좌실의 동일한 장면입니다.

그러나 이제 John은 또 다른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5장에는 하나님이 보좌에 앉으셨다고 말하는 두루마리가 있는데, 그 보좌에 앉으신 분이 두루마리를 들고 계시는데, 그 안에는 아마도 온 땅에 구원과 심판을 가져오실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 있을 것입니다. 결국 온 땅을 다스리는 그분의 왕국을 세우는 것이 그분의 계획입니다.

그 사람은 어떻게 그럴 거예요? 그리고 문제는 5장에 있습니다. John은 그곳에서 누구도 찾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환상적 경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분은 지금 하늘에 계시지만 하늘과 땅과 땅 아래를 살펴보십니다.

두루마리를 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다시 한 번 이 두루마리에 하나님의 왕국과 온 창조물을 통한 주권을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 있기 때문에 눈물을 흘립니다. 그러나 이제 존은 그것을 열어서 그 내용을 공개하고 작동시킬 만큼 적합하거나 그에 가까운 사람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John은 그것을 열 수 있는 사람을 소개받습니다. 그리고 5장에서는 어린양을 소개합니다. 이제 요한은 양 한 마리를 봅니다.

다시 한 번, 이 환상의 상징적 성격에 주목하십시오. 흥미 롭군. 예수님은 사자와 양으로 묘사됩니다.

분명히, 사자와 양 사이에서 앞뒤로 변태를 겪고 있는 예수의 이상한 그림이 없다면 그는 둘 다일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게 요점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지만, 그것은 예수를 언급하고 있지만 예수는 양의 매우 상징적인 언어로 환상적 묘사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양.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 두루마리를 가져가실 수 있는 이가 계시고, 그 책을 펴서 그 내용을 밝히시고 움직이게 하실 이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다름 아닌 죽임을 당하신 어린양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자신의 죽음을 통해 이제 이 두루마리의 내용을 제정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요한계시록의 나머지 부분은 4장 과 5장에 있는 이 환상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과 온 하늘이 그들을 둘러싸고 그들을 경배하고 그들의 주권을 인정하는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에 대한 이 환상이 어떻게 되는가이다. 결국 지구상에서 제정되니까? 하나님의 주권과 나라와 예배가 어떻게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로 돌아가며, 그것이 결국 어떻게 온 피조물에 스며들게 될까요? 요한계시록의 나머지 부분은 바로 그것에 관한 것입니다.

나머지 계시에서는 4장과 5장, 즉 하늘의 현실이 어떻게 땅에서 현실이 되는지 설명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계시는 주기도문에 대한 확장된 해설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산상수훈에 대해 조금 이야기한 것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산상수훈에서 우리는 주기도문을 읽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며 뜻이 이루어지이다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묘사합니다.

하나님이 보좌에 계시고 어린 양이 보좌에 계시니 온 하늘이 보좌를 둘러 어린 양과 하나님께 경배하며 그들의 주권을 인정하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하늘에서 이루어 지나, 이제 주기도문대로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계시는 4장과 5장에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결국 땅에서 어떻게 일어나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어떻게 온 땅이 결국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의 왕국과 통치가 기본적으로 또는 궁극적으로 로마의 통치를 대신하여 확장되어 결국 전체 창조물을 포괄하도록 확장되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그런 의미에서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은 요한계시록 전체의 버팀목으로 자주 묘사되어 왔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요한계시록의 나머지 부분은 4장과 5장의 작업과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4장과 5장이 시작되는 곳에서 계시가 끝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간단히 살펴보고 싶은 부분은 사실 세 부분인데, 인장, 나팔, 대접입니다. 4장과 5장 이후 요한계시록의 대부분은 일곱 부분으로 구성된 세 부분, 즉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으로 구성됩니다.

이 부분들은 요한계시록 전체에 걸쳐 서로 바로 다음에 나옵니다. 그래서 다시 4장과 5장 이후에 우리는 책의 나머지 부분이 봉인되지 않은 일곱 인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읽습니다. 그런 다음 일곱 나팔이 불고 일곱 대접이

쏟아집니다. 그리고 그것이 끝나면 최종 심판, 그리스도의 오심, 최종 심판, 천년왕국,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세 가지 일곱 계열, 즉 인과 나팔과 대접으로 무엇을 만들어야 합니까? 우선 우리가 상징을 어떻게 이해하는지에 대해 조금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다시 한번 구약의 배경을 이해하면서 주로 마무리된다고 생각합니다. 요한은 어디에서 아이디어를 얻었습니까? 특히 이 나팔과 대접에 대한 상징은 어디서 얻었습니까? 각 봉인이 풀리고, 나팔이 불고, 대접이 쏟아질 때 일어나는 일이 땅 위에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핵심은 지구에서 이러한 일이 언제 발생하는지 파악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요한은 묵시록에서 예상할 수 있듯이 상징적인 언어로 이를 설명합니다. 핵심은 이러한 기호가 암시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내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존은 무엇을 보고 있나요? 인봉이 풀리는 것과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볼 때, 나팔이 울리는 것을 들을 때, 땅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볼 때, 대접이 쏟아지는 것과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볼 때, 요한은 무엇을 상상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다시 말하지만, 핵심은 구약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선 간단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은 인장에 대한 설명입니다.

요한은 어린 양이 일곱 일곱을 떼었을 때 부는 나팔에 관한 이야기가 유감스럽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다시 나팔을 불 때마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다. 요한은 또 다른 천사가 금 향로를 들고 와서 제단 앞에 섰다고 말합니다.

그는 성도들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려고 많은 향을 받았느니라. 그러자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에서 하나님 앞으로 올라갔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것이 불러일으키는 모든 상징주의, 상징적 언어, 이미지 및 감정을 주목하십시오.

그러자 천사가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의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았습니다. 그리고 천둥소리와 요란한 소리와 번개와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이제 일곱 나팔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예비하더라.

이제 우리는 일곱 개의 나팔이 울리는 것을 듣게 될 것입니다. 각각의 나팔이 불 때마다 어떤 일이 일어납니다.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고 그리고 그들은 땅으로 던져졌습니다.

땅의 3분의 1이 타버렸습니다. 읽으면서 이들 중 일부를 간략하게 설명하겠지만, 여러분이 각 트럼펫에 무엇이 들어 있는지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더라.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었습니다.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습니다. 햇불처럼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삼분의 일과 샘들에 떨어졌습니다.

별의 이름은 썩입니다. 물의 3분의 1이 쓴 썩이 되었고 많은 사람이 그것으로 죽었습니다.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해의 삼분의 일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달의 삼분의 일과 별들의 삼분의 일이 그 빛의 삼분의 일이 어두워지고 낮의 삼분의 일은 빛나지 못하더라. 또 내가 보니 독수리가 날아가는 소리가 공중에 날아가면서 큰 소리로 외치는 것을 들으니, 워, 워, 워, 세 천사가 불러는 다른 나팔 소리에 땅에 사는 주민들에게. 그리고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떨어진 별 하나를 보았고,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습니다. 그가 통로를 열자 거기서 큰 화덕의 연기가 피어오르고 해는 연기로 어두워졌습니다. 그러자 그 연기 속에서 메뚜기들이 땅 위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전갈 같은 꼬리와 사람 같은 머리, 여자 같은 머리털, 머리에 왕관, 사자 같은 이빨 등을 가진 메뚜기에 대한 설명을 볼 수 있습니다. 아이디어를 얻으십시오. 그리고 그릇에 이르면 이것들은 나팔이었고, 그릇에 가면 똑같은 것이 많이 발견됩니다.

하늘이 어두워지고 달과 해가 빛을 내지 아니하며 온 땅이 어두워지느니라. 거기서는 메뚜기가 아니라 개구리가 나오고 물이 피로 변한다는 내용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에게 묻는다면, 이 재앙들은 여러분의 마음 속에, 여러분의 정식 기억, 즉 구약과 신약에 대해 생각하면서 무엇을

기억합니까? 이것은 또 어떤 재앙을 기억합니까? 출애굽기에 나오는 출애굽의 재앙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애굽의 속박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해방하고 구원하시기 전에 심판의 형태로 애굽에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일어나고 있는 일은 요한이 여러분에게 기억하기를 바라는 것이 이집트에서의 출애굽이라고 확신한다는 것입니다. 그가 말하는 것을 같은 방식으로 요약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속하시기 전에 애굽을 심판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행하신 것과 같이 악한 인류의 오만함과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압제한 것에 대해 다시 한 번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집트인.

이제 묻는다면 John은 무엇을 설명하고 있습니까? 나는 완전히 확신하지 못한다. 다시 한 번 기억하세요. 이것은 문자 그대로의 설명이 아닙니다. 요한은 문자 그대로의 하늘이 언젠가 바다로 떨어져 문자 그대로 피로 변할 것이라는 사실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 아니며, 언젠가 태양과 태양계가 문자 그대로 어두워지는 것을 묘사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것들은 실제 심판과 실제 사건에 대한 상징적 묘사입니다. 그러나 고백해야 할 것은 요한이 1세기에 무엇을 묘사하고 있는지, 1세기나 1세기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지 정확히 알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미래. 그보다는 그 의미를 이해하는 것이, 그것이 어떻게 생겼을지 추측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의미를 이해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 뜻은 하나님께서 출애굽 당시 애굽에 행하신 것과 같이 로마제국을 포함한 악한 인류를 심판하실 것이며 심판하실 것이며 또 심판하실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요한이 우리에게 바라는 가장 중요한 일은 이것들이 모두 무엇을 가리키는지 알아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출애굽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심판에 관해 말하고 싶어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마도 이 재앙은 사람들에게 대한 육체적, 영적 심판이 결합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집트의 재앙이 이집트인의 상업과 생명과 복지에 대한 심판을 의미했던 것과 같은 방식으로 이 재앙과 계시와 인장과 대접과 나팔은 로마, 그들의 상업, 가치, 전체 경제 체제에 대한 심판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로마와 로마의 발자취처럼 행동하고 따르는 다른 제국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묘사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해하는 한 가지 방법입니다. 또는 적어도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의 세 가지 시리즈를 이해하려는 출발점은 주로 출애굽에 대해 생각하기 위한 것이지 이것이 어떻게 생겼는지 추측하기 위해.

그리고 요점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이집트인의 압제에서 구출하시기 전에 이집트와 같은 방식으로 그의 사악한 인류와 로마와 같은 사회를 심판하실 것이라는 점입니다. 인장 사이의 관계에 관해서는 제가 세 가지 가능한 모델을 제시했으며 자세한 내용을 설명하고 싶지 않다는 점을 메모에 기록해 두실 것입니다. 주된 질문은 인이 인, 나팔, 대접의 순서로 서로 따르도록 하여 일곱 인이 다 이루어지면 그 다음에 일곱 나팔이 울리고 다 끝나면 그 다음에 일곱 그릇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하나의 가능성입니다. 또 다른 가능성은 이러한 중복입니다. 당신이 읽을 때, 특히 나팔과 대접을 읽을 때, 어떤 재앙이 동일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세 가지, 즉 인과 나팔과 대접이 실제로는 서로 겹쳐진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들은 단지 판결을 설명하는 다른 방법일 뿐입니다. 그것은 마치 요한이 인의 입장에서 심판을 묘사하다가, 물러나서 다시 설명하겠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일곱 대접으로 설명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정말로 당신이 그림을 얻었으면 좋겠다고 말하면서 다시 돌아가서 일곱 대접의 형태로 같은 심판을 다시 설명합니다. 그것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제가 여러분이 깨닫기를 바라는 것은 인장과 그릇 사이의 관계를 이해할 수 있는 가능한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John의 요점은 우리가 이러한 일이 현재 또는 미래에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 추측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는 언제 일어날지, 또는 정확히 어떤 모습일지. 다시 요한의 주요 요점은 출애굽의 이미지를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을 억압하고 오만하게 하나님의 자리에 앉은 악한 이교도 사회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다시 그렇게 하실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독자들에게 경고합니다.

로마의 통치에 굴복하지 마십시오. 그들의 우상 숭배하는 악한 제도에 참여하지 말고 오히려 저항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언젠가 그것을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살펴보고 싶은 다음 부분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몇 가지 숫자에 대해 간단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숫자로 가득 찬 책이고 아마도 가장 잘 알려진 것은 숫자 7일 것입니다. 그러나 숫자 666을 생각하지 않고서는 요한계시록을 생각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 숫자에 대해 조금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의 숫자에 관해 제가 말하고 싶은 가장 중요한 점은 무엇보다도 숫자도 상징적으로 해석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모든 형상과 같이 짐승과 짐승과 번개와 천둥과 메뚜기 등등과 물이 피로 변하고 별들이 땅에서 떨어지다가 쓰게 되어 바다와 물을 이룬다 쓴맛이 나고 모든 풀과 식물을 불사르게 하느니라.

이 모든 것은 이 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숫자도 상징적으로 해석됩니다. 그것들을 마치 당신이 그것들을 더해서 우리의 존재를 끝까지의 관계로 도표화할 수 있는 어떤 타임라인이나 차트를 생각해 낼 수 있는 것처럼 그것들을 수학적 정확성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수학자의 숫자가 아닙니다. 예술가나 상징적으로 글을 쓰는 사람의 숫자입니다. 그러므로 내 생각에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모든 숫자는 상징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다시 말하지만, 제가 자란 교회 상황에서 저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숫자를 배웠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할 타당한 이유가 없는 한, 대개는 좋은 이유가

발견되지 않았지만,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할 정말 타당한 이유가 없다면 우리는 그 숫자를 취해야 합니다. 문자 그대로. 나는 그것을 뒤집어서 실제로 그렇게 하지 않을 설득력 있는 증거를 제공할 수 없다면 숫자를 상징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대부분의 숫자는 아마도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알아낼 수 있거나 적어도 그 근거를 이해할 수 있는 상징적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그 중 몇 가지만 언급하고 싶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가장 잘 알려진 숫자인 666은 어떻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여러분이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이 숫자를 피하도록 이 숫자를 문자 그대로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맥락에서 자랐습니다. 제가 10대였을 때 우리 교회에서 유명한 예언 설교자의 말을 들었던 어느 날이 기억납니다. 그는 종이 뭉치와 Caterpillar Tractor Company의 컴퓨터 출력물, 그리고 그 회사 제품의 송장 몇 장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중간에 그는 다음과 같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숫자 666.

그는 짐승의 표인 666이 이미 우리 경제는 물론 Caterpillar Tractor Company와 같은 기업에도 침투하고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왜 이전 숫자는 665이고 이후 숫자는 667인지 묻지 않았는지 궁금합니다. 아마도 그것은 우연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은 666이라는 숫자가 극도로 문자 그대로 취해져서 그것을 발견하는 곳마다 피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몇 년 전 미네소타에서 열린 기독교 음악 페스티벌에 갔을 때, 들어가려면 이름표가 있어야 했는데 모든 이름표에는 숫자가 있었는데 마지막 세 숫자가 식별 번호였습니다. 그게 바뀌었어요. 내 마지막 세 숫자는 666이었습니다.

나는 반역자였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하기로 결정했고, 그것을 벗을 생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유는 나보다 앞선 사람이 665를 갖고 있었고 내 뒤의 사람이 667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말하는 것은 종종 666이라는 숫자는 단지 우연일 뿐이며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이 숫자에는 우연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숫자의 연속으로 눈에 띄지 않게 나타나기 때문만은 아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이 숫자에 대해 의도적인 뭔가가 있습니다. 나는 종종 그것이 신용 카드 및 컴퓨터 칩과 동일하다는 말을 들었고 이름을 지정하면 숫자 666이 확인되었습니다.

666 계시록에서 짐승의 표로 확인되는 것은 현대 세계의 모든 종류의 것들과 동일시됩니다. 하지만 다시 생각해 볼 몇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첫째, 요한이 의도하지 않았던 해석과 그의 독자들이 이해할 수 없었던 해석이 있다면 의심을 품고 대우받아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John은 컴퓨터 칩과 바코드,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숫자를 사용하는 방식을 알고 있었을까요? 아마도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둘째, 숫자는 상징적이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John이 걱정하는 것은 세 자리 숫자 666이 아닙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런 식으로 사용될 수 있으므로 피해야 합니다.

그러나 John의 주된 관심은 세 가지 정확한 숫자의 출현이 아니라 그들이 상징하는 것, 즉 666의 상징적 가치입니다. 이제 이것을 이해하는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아마도 숫자 6은 단순히 숫자 7의 하나가 부족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숫자 7은 우리 대부분이 알고 있듯이 창조 이야기로 돌아가서 다음 번에 여러분의 노트에서 살펴보겠습니다.

7은 완전 수이다. 어떤 사람들은 요한계시록 13장에 언급된 666이 짐승의 표로 언급된 유일한 곳이며, 그렇다면 666은 7의 수보다 세 번 부족할 것이라고 제안합니다. 즉, 결함의 개수입니다.

수입니다. 이는 완전수 7에 미치지 못하는 숫자입니다. 따라서 아마도 666은 단지 로마제국에 대해 말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완벽함이 부족합니다.

완전함의 수에 미치지 못합니다. 그것은 부족합니다. 그것은 불완전하다.

또한, 또 다른 가능성은 이들 중 어느 것도 제한하거나 배제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때때로 나는 John이 이미지의 의미가 풍부하기 때문에 이미지를 사용한다고 확신합니다. 그것은 한 가지 이상의 것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의 설명에만 국한할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6은 완전수 7보다 부족한 불완전성의 수라는 점 외에도 숫자 666이 Nero라는 이름을 제안했을 수도 있습니다. Nero라는 이름을 구성하는 문자의 숫자 값을 이름의 특정 철자로 더하면 숫자 666이 나옵니다.

따라서 일부 사람들은 666이 최초의 독자들에게 네로 황제를 상기시켰을 것이라고 제안했습니다. 이제 John이 나중에 Domitian 밑에서 글을 쓰고 있다면 아마도 Nero는 오래 전에 그들 옆에서 사라졌을 것입니다. 어쩌면 John이 원하는 것은 그들이 Nero를 기억하도록 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즉, 네로는 악과 사악함의 화신이자 모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Nero의 이름을 연상시키는 숫자인 666을 사용함으로써 John은 "너는 그 사악한 짐승 같은 통치자인 Nero를 기억하느냐?"라고 말하고 싶어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에게 현재의 로마는 단순히 네로가 무엇인지, 그리고 네로가 하고 있던 일이 다시 구현된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어떤 의미에서는 네로가 부활한 것과 거의 같습니다.

네로의 정신은 이제 나타나고 있으며 여전히 로마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독자들에게 아마도 과거의 정말 사악하고 사악한 통치자였던 네로를 상기시킴으로써 로마의 진정한 본질을 보게 하는 또 다른 강력한 방법일 뿐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마치 다시 말하듯이 그들에게, 어떤 의미에서는 네로가 통치하던 시절 황제 배후에 있던 정신과 권력과 힘이 이제 다시 작동하고 있음을 상기시키고자 합니다.

하지만 둘 중 하나도 배제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마도 그것은 완전성이 부족한 숫자인 6, 즉 완전수 7을 의미할 것입니다. 그러나 666은 의심할 바 없이 네로의 이미지를 상기시키고 불러일으켰을 것이며 아마도 네로를 다시 언급했을 것입니다. 단지 독자들에게 로마의 진정한 본질을 상기시켜 줄 뿐입니다. 그들이 직면한 통치와 로마제국. 따라서 666은 다시 한 번 의미되지 않습니다. 요한은 특정 사람이나 특정 사건 또는 특정 기술적 경이와 같은 21세기의 사물을

예측하거나 언급하지 않지만 666은 1세기의 맥락에 비추어 이해해야 합니다. 그 상징적 가치.

숫자 7 역시 앞서 말했듯이 상징적인 가치를 갖고 있습니다. 아마도 창조의 7일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숫자 7은 이제 완전수(완전수)가 됩니다. 따라서 숫자 7을 볼 때마다 완전성과 완벽함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방금 이야기한 7가지 재앙과 7가지 인과 대접에 관해서는 문자 그대로 7가지가 연속적으로 발생한다는 것이 주된 개념이 아니라, 요한이 7가지를 상징적으로 사용함으로써 7가지를 묘사함으로써 완전성을 전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면 완벽함. 그러므로 일곱 대접과 재앙과 인은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완전하고 완전한 수를 암시합니다. 또는 7의 배수. 따라서 요한계시록 7장에 이르면 요한은 144,000의 환상을 봅니다.

그것은 단순히 7 곱하기 7이거나 단순히 7 곱하기 1,000의 배수입니다. 그러면 결국 144,000을 얻게 됩니다. 다시 말하지만, John이 하려는 것은 실제로 숫자 12가 아닙니다.

John이 하려는 것은 수치적인 수학적 값을 전달하려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 12의 배수인 144,000을 사용하여 저자는 그 숫자의 상징적 값에 대해 무언가를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7이 어디에서 나오든 완전 수입니다. $3 \frac{1}{2}$, 다음 것, $3 \frac{1}{2}$ 은 7의 절반입니다. 따라서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단지 절반에 불과하거나 다시 완벽함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은 여러 번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박해가 3년 반 동안 일어날 것이라고 언급합니다. 이제 나는 $3 \frac{1}{2}$ 년을 취하고 그것을 $3 \frac{1}{2}$ 년이라는 또 다른 기준에 더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7이 나오며 그 때가 대환란의 때입니다. 그러나 나는 John이 엄격한 시간적 또는 수학적 용어로 말하고 있다고 확신하지 않습니다.

$3 \frac{1}{2}$ 년은 시간적 가치로 볼 때 중요하지 않으므로 달력을 앞에 둘 수 있다면 $3 \frac{1}{2}$ 360일 연도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다시 상징적인 가치입니다. 3

1/2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이는 격렬한 갈등의 시간을 상징하지만 곧 끝날 것입니다.

오래 지속되지는 않습니다. 온전함, 온전함, 온전함을 의미하는 숫자 7과 대조적으로 3년 반은 불완전함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요한이 3년 반을 사용하여 교회가 겪게 될 환난과 박해와 환난의 기간을 묘사함으로써 3년 반이라는 숫자를 사용함으로써 요한은 다음과 같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달력을 꺼내서 3년 반을 세면 그 정도까지만 지속됩니다.

그는 그것이 단순히 지속되지 않는 짧고 강렬한 기간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잘릴 거예요. 숫자 7의 절반입니다. 숫자 12는 이미 144 또는 144,000이라는 숫자를 언급했습니다.

그것은 12의 배수입니다. 12의 의미는 이스라엘의 12지파와 12사도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요한계시록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 12라는 숫자는 이스라엘 12지파를 중심으로 한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12지파를 중심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현재 교회는 12명의 사도를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요한계시록의 12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계시록 7장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144,000의 비전은 12의 배수입니다. 12 곱하기 12는 144, 1,000을 곱한 것입니다. 계산기를 들고 거기 서 있으면 144,000명을 셀 수 있다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상징적 가치이다. 144,000은 하나님의 백성의 완전하고 온전한 수를 의미합니다. 아마도 144,000보다 훨씬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John의 요점은 숫자의 수학적 가치가 아닙니다.

이것은 12와 그 모든 배수의 상징적 값입니다. 12 곱하기 12, 144. 새 예루살렘은 12 단위로 측정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상징적인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킨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모든 숫자는 666이든, 7, 3 1/2, 12, 1,000이든, 아마도 완전성과 크기를 암시할 것입니다. 그 모든 숫자는 수학적 의미와 가치 때문에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우리가 그 숫자들을 더해서 시간이나 정확한 숫자를 알아낼 수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상징적 가치 때문에 중요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과 13장의 다른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특정 부분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숫자는 요한계시록 전체에 걸쳐 나타나지만 우리는 요한계시록 12장과 13장의 한 부분에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과 13장은 요한이 본 환상으로, 여기에도 여러 가지 흥미로운 등장인물이 등장합니다. 네 명의 주인공을 중심으로 전개됩니다. 미안해요, 다섯 명의 주인공이요.

여자, 아이, 용, 짐승 두 마리. 이야기는 12장부터 시작하는데, 이 여자가 아이를 임신했는데, 용이 태어나자마자 이 아이를 삼켜 삼키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하늘로 올려져 보존되느니라, 용이 분노하여 여자를 뒤쫓느니라.

그러나 여자까지 살아남았기 때문에 그는 결국 여자의 후손을 쫓게 됩니다. 용이 크게 노하여 여자의 후손 곧 여자의 후손을 쫓았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우리는 상징적으로 말하고 있으므로 그 여자는 실제 문자 그대로의 여자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아마도 이 시점에서는 선지자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여호와의 아내, 하나님의 아내를 여인으로 자주 언급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요한의 12장에 나오는 여자는 아마도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키는 것일 것입니다. 그러나 용은 그녀를 잡을 수 없어서 그녀의 자손을 쫓습니다.

그리고 그를 돕기 위해 용은 두 명의 조력자, 두 마리의 짐승, 13장에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그리고 땅에서 올라온 짐승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용의 앞잡이가 되어 그가 이 여자의 후손과 자녀들을 빼앗아 멸하도록 도울 것입니다. 그래서 이야기의 내용은 대략 이렇습니다.

이제 이에 대해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는 섹션의 기능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이 섹션은 무엇을 하고 있나요? 요한이 이 환상을 보고 독자들에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지만 먼저 구약의 배경을 살펴보고 싶습니다.

이제 기억하세요. 이 이야기에는 중요한 인물이 많이 있습니다. 당신에게 임신한 여자가 있는데, 심지어 해산의 고통을 겪었다고 합니다. 그녀는 산고를 겪고 있으며 이 아이를 낳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자신의 후손인 아들을 낳습니다. 하지만 그 후손을 파괴하려는 용이 있습니다. 그는 13장에서 용과 매우 유사하게 묘사된 두 마리의 용형 인물, 두 마리의 짐승을 불러서 용이 여자와 그녀의 자손을 파괴하도록 돕습니다. 자, 이것이 구약성서의 어떤 이야기와 공감하는 것 같나요? 자, 우리는 창세기 3장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인류가 창조된 후, 3장에서 아담과 하와는 뱀의 유혹을 받아 먹지 말라는 나무를 먹음으로써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은 저주의 말씀을 내리실 것인데, 피조물에게 저주의 말씀을 내리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창조시에 선언된 저주이다.

주 하나님께서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짐승과 모든 들짐승 가운데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너는 배로 다니고 평생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자, 다음 두 구절을 들어보세요.

그분은 여전히 뱀에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는 여자에게도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가 너와 뱀과 여자 사이에, 그리고 너의 후손 곧 여자의 후손 사이에 적의를 둘 것이다. 그는 당신의 머리를 칠 것입니다.

그는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칠 것이다. 그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해산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라 하시니라 너는 고통 속에서 자녀를 낳을 것이다.

자, 많은 사람들이 궁극적으로 복음에 구체화되는 것을 일종의 미리 맛보거나 예표하는 것으로 본 짧은 두 구절에서 이 두 구절의 모티브 중 얼마나 많은 것이 요한계시록 12장과 13장에서 반복되는지 주목하세요. 뱀과 여자가 적대 관계에 있다는 것이 계시록 12장과 13장에 여자와 용 사이의 갈등으로 반영되어 있음을 주목하십시오. 요한계시록 12장에서 용이 창세기 3장에서 속이는 자, 옛 뱀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창세기 3장에서 방금 읽은 용을 뱀으로 밝히면서 우리를 창세기 3장으로 데려갑니다., 15 및 16.

그래서 우선 창세기 3장, 15장, 16장에는 뱀과 여자가 적대 관계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과 13장에는 용과 여자가 서로 적대적인 싸움을 벌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창세기 3장 15절과 16절에는 여자와 용뿐 아니라 그들의 후손도 서로 원수가 될 것이라는 약속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과 13장에서는 용이 여자의 후손을 쫓고, 용의 후손인 두 짐승도 여자의 후손을 쫓는다. 그래서 12장과 13장에서는 여자의 후손과 용의 후손 곧 두 짐승 사이의 갈등이 나옵니다. 창세기 3장, 15장, 16장에는 그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일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13장에서는 짐승 중 하나가 그의 머리가 부서지거나 죽임을 당한 것처럼 묘사되는데, 이는 아마도 창세기 3장을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창세기 3장에서 그 여자는 오직 아이만 낳을 것이라는 말을 듣습니다. 고통을 통해서, 그 출산은 고통을 통해서일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에는 여자가 아들을 낳기 위해 해산의 고통을 겪는 것으로 나옵니다.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아시나요? 마치 요한계시록 12장과 13장은 창세기 3장, 15장부터 16장까지의 내용을 더 길게 묘사한 것과 같습니다. 여기서 저자는 다시 “내가 너로 여자와 뱀과 여자 사이에 원수가 되게 하고 너희 사이에도 원수가 되게 하리니”라고 말합니다. 자손과 그녀의 것.

그는 네 머리를 치거나 으스러뜨릴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칠 것이다. 그 여자에게는 내가 네게 해산의 고통을 더하게 하리라 하시니라 그 모든 일은 이제 요한계시록 12장과 13장에 나옵니다.

그렇다면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무슨 일이야? 이 섹션의 기능은 무엇입니까? 기본적으로 요한계시록 12장과 13장은 1세기 그리스도인과 로마 사이의 갈등의 진정한 성격을 다시 한번 폭로하려고 시도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종말론적으로 장막이 걷혀 그들이 갈등의 진정한 본질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요한이 말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이 직면하고 있는 진정한 갈등은 로마와의 갈등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창조세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갈등이라는 것입니다.

즉, 그들은 놀라서는 안 됩니다. 더욱이 그들은 이제 그들이 보는 것이 단지 이것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하며, 로마를 보고 경외감을 느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들이 보는 것은 거대한 제국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그들이 로마와 직면하는 투쟁은 궁극적으로 창세 12장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사탄 자신과의 투쟁의 구체화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는 그들이 상황을 새로운 관점으로 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는 그들이 직면하고 있는 갈등의 본질, 즉 그것이 로마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진정한 갈등은 창세기 초반의 창조에서 시작된 갈등인 사탄과의 갈등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뱀은 과거에 했던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멸망시키려고 그의 추악한 머리를 치켜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저항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요한계시록 12장과 13장은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한 말에 대한 해설입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6장에서 영적 갑옷에 대해 간략하게 이야기한 것을 기억하십시오. 바울은 “너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의 싸움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물리적 전선에서 직면하는 모든 전투가 단지 환상이거나 실체가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말하는 것은 그게 아니다.

예, 그것은 현실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종말론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당신이 직면한 진정한 전투가 물리적인 경험적 전투가 아니라 그 뒤에 숨어 있는

진정한 전투를 이해해야 한다는 것을 그들이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요한이 독자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로마와 직면하고 있는 갈등이 이야기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장막을 걷어내시어 창조 때부터 시작되는 훨씬 더 큰 갈등과 하나님의 목적과 그분의 백성을 파멸시키려는 사탄의 시도가 무대 뒤에서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 주십니다. 그러나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여자의 씨에 의해 궁극적으로 패배할 것입니다. 이 짐승 중 하나의 머리가 상한 것처럼 보이는 일이 이미 일어났습니다. 이제 그들은 우리가 갈등의 진정한 본질을 이해했을 뿐만 아니라 이미 치명타가 가해졌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머리는 이미 짓밟혔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해야 할 일은 저항하고 로마의 통치에 굴복하지 않는 것뿐입니다. 괜찮은.

멈추기 좋은 곳이에요. 다음 수업 시간에 요한계시록이 끝날 무렵에 살펴볼 몇 가지 다른 구절이 있습니다.